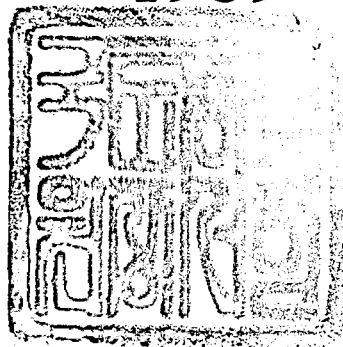


社會主義下的民族理論

1989



金 弘 明
(朝 鮮 大)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政策調查研究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本 研究는 民族問題의 歷史的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그 位相 및 문제점, 객관적 條件과 주체적 動因을 총체적으로 照明하고 있습니다.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目 次

I.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民族’論議의 出發點	5
II. 民族體에서 民族으로	12
III. 保革의 갈림길에 선 民族運動	22
IV. 世界革命에서 民族問題의 位置	30
V. 結 論	36

흔히들 마르크스주의에는 民族理論이 不在하다든가, 周邊的이라든가 아니면 體系的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의 民族理論이 外面되어 왔으며, 레닌주의가 民族보다 階級을 중요시했다는 근거에서 民族과 階級이 對立的으로 照明되고 마침내는 民族理論 자체마저도 階級理論으로 消滅해 버리는 傾向을 우리는 최근 보아왔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民族의 空間을 떠나 階級과 階級鬪爭을 논하지 않았음은 마치 헤겔의 ‘理性’이 결코 歷史를 넘어선 것이 아님과 같다. 그렇다고 古典理論에 限定하여 마르크스주의의 民族理論을 구성하려는 試圖는 기껏해야 오늘날의 現實이 그들이 對象삼았던 時代 이래 아무런 새로운 特質을 얻지 못했다고 보려는 限에서 타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¹⁾

오늘날 民族問題는 全世界的 水準의 問題이며, 그것은 世界資本制의 不可分的 體系內的 一問題에 불과하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이론구성이 전혀 없는데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을 비틀러놓은 주장들이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다.²⁾

現代는 帝國主義時代이다. 現代마르크스주의는 “帝國主義時代의 마르크스주의”이다.³⁾ 비판자들은 레닌주의가 革命의 理論으로서 프로레타리아트 獨

註 1) 서구 맑시즘의 한 分派는 마르크스에 충실하려는 노력의 나머지 마르크스 자신이 방법론상 크게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1872년판(제2판)보다 1867년판을 고집하는 병적 극단성을 보여준다. 아마도 현실 도피의 최선의 길이 그렇게 얻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후진사회의 論爭에서도 보편적인 보상이다.

2) 그 가장 어리석은 글로서 신상석, 「民族問題의 결산」(일송정, 1989)과 이진경, “민족문제의 계급적 관점—“民族解放運動論”의 비판, 「經濟와 社會」(1989), 제 2권 1호, 202-219.

3) Josef Stalin, Fragen des Leninismus (Berlin: Oberbaumverlag, 1970), S.10.

裁의 理論을 뚜렷이 하면서도 여타의 存在들, 예컨대 農民·民族·東方의 解放運動등에 대해서 經驗的 水準의 논의에 그치는 듯한 印象을 확대하려 든다. 그 결과 이들은 마치도 空白의 영역처럼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革命의 기초로서 프로레타리아트 獨裁의 理論은 다른 主體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과 일단 구별되며 이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된 이해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필자는 I. 맑스·레닌주의에서 ‘民族’ 논의의 출발점 II. 民族體에서 民族으로 III. 保革의 갈림길에 선 民族運動 IV. 世界革命에서 民族問題의 位置의 순서로 현대마르크스주의의 民族理論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I.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民族”論議의 出發點

마르크스·엔겔스가 제시했던, 그리고 레닌·스탈린이 발전시킨 ‘民族’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歷史·社會的 範疇라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民族은 自然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史的으로 生成·變化·融合되어 가는 存在이며, 그것은 특정의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 現實化하는 存在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정의 조건은 주로 부르조아民族國家의 成立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民族이 그 人種的·言語的 基礎를 가지지 않은채, 심지어는 이를 배제한 채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다시금 제 2장에서 보다 詳說하겠지만, 여기서 논의의 집중이 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觀點에서 민족의 實體的 측면보다도 민족의 社會·經濟的 性格을 보다 강조하였는가 이다.

레닌은 유물사관적 방법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회과학에 있어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였는 데에 가장 정확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 核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선은 (대상의) 역사적 인과관계성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안에서 특정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역사발전과정에서 그 현상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와 같은 문제를 보는 기본시각(계급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역사관에 입각하여 현재 論議되는 대상으로 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도 연구해야 한다.”

곧 유물사관적 입장은 어떤 분석도 — 民族을 포함한 — 그것을 歷史

註 4) 레닌, “국가에 관하여”

的 現象으로 把握하도록 요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民族’의 概念을 확정하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것을 천년 혹은 수천년을 지속시켜 온 — 그러한 한에서 미래의 實踐을 불확실하게 혹은 — 自然的 要素, 예컨대 血統, 言語, 領土보다도 生産樣式에 따른 歷史的 時期區分과 關聯하여 그것의 설명이 가능한 한 거기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蘇聯學者 S.T.Kaltachtschjan에서도 찾아진다. 곧 칼타호찬은 “民族的 概念은 다른 社會現象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지 어느 한 民族이 다른 民族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식으로 概念이 성립되어서는 안된다.”⁵⁾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民族의 概念은 유럽의 經驗, 특히 다양한 種族·민족체 등의 離合속에서 보편적인 性格을 중심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또한 보여준다. 그 결과 血統과 言語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이론상의 難點을 제시하지 않았던 서부 유럽의 民族이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共通性이 土臺를 이루지 못한 社會에서 어떻게 民族이 형성되는가에 집중적인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論議는 民族의 概念이 주로 社會·歷史的 性格에 의해서 정의되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方法론의 의미를 밝히는 한에서 충분하다. 民族은 결국 역사적 범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지녀온 民族의 積極的 機能을 동시에 評價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곧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민족의 血統的·言語的 측면의 必要性을 民族과 區分되는 ‘民族體’와 대

註5) S.T.Kaltachtschjan, Der Leninismus uber das Wesen der Nation und der Weg zur Bildung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der Menschen (Moskau, 1969), S. 88.

조하면서 民族의 實體的 土臺와 歷史的 現象을 民族體와 民族의 各 段階에서 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民族’의 概念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는 민족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民族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民族일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血統과 言語가 ‘民族’의 方法論上的 前提要件을 이룬다는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民族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에로 문제를 옮겨보자. “맑스주의와 民族問題”에서 스탈린은 “民族이란 言語, 領土, 經濟生活, 文化 共同體에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지구적인 공동체이다.”⁶⁾ 라고 정의한다.

스탈린의 “맑스주의와 民族問題”(1913)은 당시 Otto Bauer, R. Springer 등 오스트리아 社會民主黨의 ‘文化共同體論’ Rosa Luxemburg의 폴란드 극좌이론, 그리고 러시아 Mansheviki의 非政治的 ‘自決論’에 대항한 것으로서 레닌의 요청에 의해 레닌의 사상을 Bolsheviki의 民族理論으로 정착시킨 것이었다. 民族의 결정 - 形成과 發展 및 解體 - 을 단순한 심리적·文化的 狀態에 토대를 두고 설명하려는 부르조아적 民族理論은 오스트리아의 실정에 맞추어 Bauer 등에 의해 발전되고 있었다.” 또한 Lux-

註 6) Stalin, Maxism and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London: Lawrence & Wishart, 1936), p.8.

7) Otto Bauer, “Bemerkungen zur Nationalitätenfrage,” in Die Zeue Zeit(1908), Bd. 1, S. 794.

Otto Bauer, 「Die Nationalitätenfrage und die Sozialdemokratie」(Vienna, 1924); R. Springer, 「Das nationale Problem」(Leipzig und Vienna, 1902).

emburg는 帝國主義時代に 民族의 경계를 확보하고 압박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無爲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民族問題를 일방적으로 階級問題에 環元시켜 버린 極左的 偏向이 존재했다.⁸⁾ 그리고 식민지를 가진 종주국의 경우 식민지 解放鬪爭은 물론 다민족국가에서 민족의 정치적 獨立의 요구를 民族自決權에서 배제하려는 사회주의의 일반 그리고 특히 러시아 멘세비키에 대한 1903 이래의 볼셰비키의 鬪爭이 스탈린의 글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우어처럼 文化를 중심으로 하거나 스탈린처럼 어느 한 特徵이 다른 特徵에 비해 지배적으로 우세할 때 民族의 본질이 결정되는, “일정한 特徵들을 共有”하거나 관계없이 民族 곧 共同體라는 等式은 Alfred Kosing에 의하면 “民族의 계급적 성격과 계급적 내용을 은폐해 버릴” 오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⁹⁾

나아가, Kosing은 스탈린의 民族理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덧붙이고 있다.¹⁰⁾

스탈린에 의해 내려진 民族의 概念은 현저하게 도식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의 概念에 거론된 特徵들이 모두 존재해야만 民族이 비로소

註 8) Rosa Luxemburg는 “사회민주주의 위기” 민족국가들의 戰爭이 오늘날 제국주의 戰爭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에 民族戰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極左的 偏向을 보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民族運動이 가능하며, 오히려 오늘날에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레닌은 지적했다. 민족의 범주가 일면 노동계급을 부르조아의 이익에 종속시키는가 하면, 그 반대의 현상도 있는 것이다.

9) Alfred Kosing, Nat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김영수역, 「사적유물론적 민족이론」(아침, 1989), 36 - 37면.

10) 앞책, 38면

성립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歷史의 법칙적 발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을 전혀 무시하는 추상적 도식으로 民族의 생성과 民族의 歷史를 概念으로 재단하는 꼴일 뿐이다. 여기서는 인간집단들의 결합을 民族으로 발전하도록 통합적·계기적으로 작용하는 社會的 요소와 그러한 民族의 발생과정을 다 거치고 난 결과 나타나는 民族의 固有한 본질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民族의 方法論上的 問題點으로 제시된 Kosing의 소개에 그치고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의 장에서 자연스럽게 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덧붙일 내용은 Kosing이 지적한 ‘오류’의 代案속에서 “民族이 社會의 歷史的 發展過程에 있어 필연적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社會的 機能과 歷史的 役割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론화하는 것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蘇聯學界의 研究로서 *Der Leninismus und die nationale Frage in Gegenwart* (Moskau, 1972)는 오늘날 民族의 형성과 발전, 民族의 特徵들간의 관계 그리고 社會發展過程에서의 民族의 역할등에 대해서 스탈린의 論文이 충분히 把握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民族 그 자체가 不變의 概念이 아닌 것만큼 스탈린 자신도 생전에 수많은 民族에 관한 論文과 體制, 分析과 展望을 내렸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 2판(1974)은 스탈린의 肯定的 역할을 자세히 言及하였다.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출발점이 결코 完결·고정·절대가

註 11) 1936년판에 이미 그때까지 최소한 20여개의 대표적인 글들이 실린 것이 「마르크스주의와 民族·植民地問題」이다. 어떻게 이미 쓰여진 하나의 論文이 그 이후의 歷史를 완벽하게 모두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닌 실천의 지침이라면,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理論은 결코 이미 끝난 작업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對象世界의 不斷한 발전과 함께 자신의 발전을 게을리할 수 없으며, 이를 따라잡는데 실패하는 순간부터 굳어지고 教條化된다.

문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적인 方法論이 민족理論에 적용되어야 한다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시각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떻게 對立 혹은 相達의 관계에서 있는 概念들이 整合이 이루어지는 形態로 민족理論을 體系化하며, 이를 變化해 가는 現實에 適應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帝國主義時代의 初期에 민족問題는 비교적 평이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거기서 민족解放은 단지 帝國主義勢力圈과 斷切·離脫로서 이루어지고 獨立國家의 成立에서 完成되는 水準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歷史는 20世紀初의 希望을 그 終末에 앞서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민족解放의 問題가 單純히 外勢에서 ‘解放’되는 것이 아니라 眞정으로 外勢에서 解放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그 결과 獨立의 虛構性和 解放의 幻想이 함께 드러났다. 곧 帝國主義는 植民主義를 親植民主義로 溫存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족問題는 資本制初期 혹은 그 最高段階인 帝國主義의 初期에 제기되는 性格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末期 아니면 어떻든 그것의 일정한 시기에 해당하는 민족問題를 가리키고 있다.

그와 함께 민족問題는 우리나라나 獨逸, 中國, 南北예멘,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들의 경우 人爲的 分斷과 境界로 더욱 錯綜해지고 있다. 거기에서 민족問題는 민족解放의 原初的 形態의 課題가 미처 해결되지 못한채, 資本制의 一定時期가 부과하는 새로운 特質을 獲得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帝國主義時代의 民族問題는 最終的으로는 資本制社會의 不均等發展의 理論에 論據하면서 그것의 實證的 適用의 모습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同時에 世界革命에서 民族解放運動이 지닌 位置를 보다 的確하게 찾아내는 작업이 될 것이며, 선발자본제社會의 政體의 淸을 헤어나지 못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狀況과 이들의 歷史的 未來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理論的 관심을 분배하는 작업이 된다.

II. 民族體에서 民族으로

觀念論的 偏向을 보이는 부르조아民族理論은 民族을 自然的 不變의 것인 양 가정하면서 그 實體로서 民族精神, 血緣의 共通性, 民族意識, 文化共同體 등을 내세우고 있다.¹²⁾ 물론 이러한 주장이 觀念論的인 근거에 서 있고, 더구나 극단으로 나갈 때, 이의 論理的 價値가 크게 손상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고비노의 理論이 나치독일에서 아리안 — 獨逸原族 — 을 찾아내려는데로 동원되었을 때 이미 수천년 썩어어진 피속에서 어떻게 神話에 의존치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부르조아 民族理論이 觀念論的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고 ‘유물론’ 이라면 뭐고 동원하는 非論理的인 態度도 科學的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우수한 理論이라면 그 속에서 合理的인 內容을 析出하여 새로운 民族理論에 이용하는데 있다.

唯物史觀的 民族理論은 民族의 性向과 範圍를 확정하는데 있어 民族과 民族의의 概念을 엄밀히 區分하고 그에 근거하여 民族과 民族體의 관계도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民族體란 무엇인가?

民族體(Nationalität)는 “하나의 인간집단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어느 한 종족이 자기들의 인종적, 言語的 共通集團을 위해 정치권력을 추구할¹³⁾ 때 불리우는 이름이다. 쉽게 말하여 그것은 血統과 言語에 기초한 封建的 種族集團의 하나로서 政治組職體 우선성으로 훗날 資本制의 形成期에

註 12) 예컨대 Hegel의 「歷史哲學」, J.S.Mill의 「대의정부론」 參照

13) Kosing, 앞의 책, 50면.

함께 民族으로 변해갈 主勢力이다. 封建社會內에는 民族體으로 성장·발전 해가지 못한 種族集團과 血緣體들이 併存한다. 이들은 民族體와 함께 封建社會 以前에 있었으며 단지 封建社會의 成立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主力으로 떠오르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封建社會는 우선 資本制에 들어가면서 民族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土臺를 확보한 民族體, 封建社會로 넘어 오면서도 여전히 前封建的 社會의 構成物로 殘存하는 種族集團들(Volkerstämme) 및 血緣體들(Stämme)이 있다.

民族形成의 일반유형은 民族體의 民族으로의 轉化이다. 이에 관하여 Kosing은 “유럽에서와 같이 人種上 비교적 유사한, 따라서 言語上으로도 동일계통상에서 결합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大規模 인간집단이 이미 지나간 歷史過程의 결과로서 형성되어 있었다면 民族形成의 과정은 이들 大規模 인간집단 전체안에서 진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곧 유럽의 경우 - 영·프랑스·독·이탈리아·스페인등 - 자본제 성립의 여명기에 이에 大規模의 民族體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主體가 되어 民族을 形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극단적인 예외현상으로서 美國民族을 들 수 있다. 레닌이 직시하였던 바 “그들 [다양한 인종집단과 언어집단등]간의 뚜렷한 民族的 차이가 이곳에서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속함과 급격함속에서 그들이 하나의 美國民族으로 용해” 시켜온 힘은 무엇이었던가? 美國 資本主義의 무자비한 競爭과 결과물의 보장체계가 확보한 ‘용광로’였다. 여기서는 民族의 實體인 民族體의 形成 및 그 기초위에서 民族이 形成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 없이도 民族이 形成된 것을 보여준다.

다른 예외적 유형들로서는 하나의 民族體가 여러개로 혹은 여러 民族體

가 하나의 民族에로 나타나거나, 民族體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다른 民族體와 함께 民族에로 흡수과정을 들어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하나의 民族體가 여러개로 나뉜 경우는 독일의 경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각각 獨立的인 民族에로 분리되어간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여러 民族體가 하나의 民族에로 통합되는 경우로서는 스위스이다. 하나의 民族體의 일부가 다른 民族에 편입되어 들어간 예로서는 독일민족이면서도 프랑스민족을 선택했던 알사스·로랭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이다.

무엇이 이처럼 다양한 離散과 融合을 助長하는가? 첫째로는 經濟生活의 필요성이다. 한 社會가 經濟的으로 관련될 수 없을만큼 擴大하거나 中央 政府의 政策이 특정지역을 보호하는데 失敗함으로써 民族의 일부는 獨立하며 새로운 民族으로 태어난다. 네덜란드의 경우, 獨逸의 일부였던 이 지역이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독일인에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도시의 발달, 매뉴팩처와 무역의 번성등 經濟적으로 급속한 성장의 가능성을 쥐게 되면서 급기야는 獨立에로 나아가고 ‘17세기 資本制 모국’¹⁴⁾에로 절정에 오르게 된다.

둘째, 政治的 立場과의 관계이다. 프랑스大革命의 結果 歷史의 진보를 담당하는 프랑스와 封建的 귀족지배의 고삐를 더욱 조여도 독일 사이에서 알사스·로랭地域의 주민들은 독일의 民族임을 自蔑로서 느끼고 革命的 鬪爭을 통해 프랑스民族化되고 만다. Engels의 말처럼, “大革命이 뒤뤼르흐 주민으로부터 플랑드르인에게 브레타뉴주민으로부터 켈트인에게 코르시카로부

註 14) Karl Marx, Das Kapital (Dietz Verlag, MEW), 23, S. 779

터 이탈리아인에게 동일 기적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 15)

셋째, 스위스民族의 形成에 관해 Engels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거의 모든 다수 민족들은 그들의 종족체의 일개 변방부분으로 떨어져나가 민족적 삶에서 떨어져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 다른 종족이 민족적 삶에로 착근되어 있었다. 그 결과 다시금 主血緣體(Hauptstumm)에로 병합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지난 천년동안 뒤엎히고 점진적인 유럽역사의 전개의 자연적인 결과물이다. 16)

여기서 엥겔스는 民族의 형성 및 경계가 인종적인, 언어적인 경계 못지않게 생활의 경계 내지는 社會·文化的 경계에 의해서 影響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民族形成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社會的 다이내미즘(美國), 經濟的(네덜란드), 政治的(알사드·로쟁), 社會·文化的(스위스) 요소들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살펴보았다. 어떤 요소가 더욱 크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러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요소의 부재 혹은 약화의 상대적 이득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美國統合에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資本主義的 需要 — 시장의 확대 및 經濟的 축적의 규모 — 를 강조하는 레닌마저도 “民族體나 언어의 동일성과 같은 것은 내적 시장의 완전한 정착과 완전한 經濟流通의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17) 임을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血統과 言語의

註 15) Friedrich Engels, “Die Rolle der Gewalt in der Geschichte,” MEW, 21, SS. 444-445.

16) Engels, “Was hat die Arbeiterklasse mir Polen zu thun?” MEW, 16, S. 158.

17) Lenin, “Critical Remarks on the National Question,” Collected Works, 20, p. 48.

동일성은 民族의 要素가 아닌 民族統合過程의 “중요한 要素”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民族形成이 民族體내에서 이루어지는 一般類型에서 볼 때, 그것은 民族의 要素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예외를 설명하기 위하여 一般類型을 해체시킬 必要가 있겠는가?

民族體가 民族의 先行態(Vorform)이라면, 一般類型에 속하는 경우에 民族體의 기본요소를 이루는 血緣과 言語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血統의 순수성을 原型에서 찾는 방식으로 논리를 확대할 경우 어떤 大集團도 混合的 狀態를 발견하는가 ‘알 수 없다는’ 結論에 떨어지고 만다.

Kaltachtschjan에 의하면 “하나의 民族體란 어느 정도 큰 規模의 人間集團을 形成한다. 그런데 이 人間集團은 자신들의 言語와 文化的으로 주어진 특성 그리고 人種의 귀속감에 대한 자각등에 의해 서로 구별되고 있다”¹⁸⁾고 한다. 여기서 칼타흐찬은 言語, 文化, 人種의 3요소를 民族體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言語와 文化는 최종적으로 人種의 性格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民族體는 民族의 人種의 土臺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한에서 蘇聯의 역사가인 J.W.Arski가 “民族體란 民族의 胚芽”라고 불렀던 것은 옳았다.

그러면 民族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Engels에 의하면 그것은 封建社會의 特徵種族集團이다.¹⁹⁾

註 18) 칼타흐찬, 「民族本質 및 國際社會形成의 길에 관한 레닌주의」(모스 크바, 1969), Kosing, 앞의 책에서 재인용, 139면.

19) MEW, 21, S. 395.

중세초기에 종족들의 대이동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새로운 民族體들이 차차 태동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분명히 로마제국의 판로였던 곳곳에서 패자들은 정복자들에게 農民이나 都市民들은 게르만족 支配者들에게 동화되어 갔다. 근대의 民族體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억압계급들로부터 나타났다.”

결국 중세사회에는 封建的 種族集團과 그 우월한 형태인 民族體가 있었으며, 資本主義의 成立과 함께 民族體가 주변의 일부 종족진단들을 합류시키면서 民族으로 진화하거나 아니면 封建的 種族集團이 民族體過程 없이도 民族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바꿈이 아닌 완전한 형성을 의미한다.

民族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필요였으며, 곧 民族의 형성은 부르조아지의 市場확보를 위한 내용이다. 거기서 民族의 社會經濟的關係가 함께 刻印된다. 또한 民族의 형성은 人種的, 言語的, 社會意識의 共通性에서도 그 要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民族의 다른 한 要素 — 人種的 土臺 — 는 이렇게 규정되어진다.

民族의 形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民族은 라틴어 natio, 로어 natsiia로서 中世의 natio는 親族集團을 의미하지만 natsiia는 1700 年代初 Fyotr 1世의 改革이 있기까지는 쓰이지 않았던 narod의 對的概念이다. 곧 러시아에서 natsia는 現代 내지는 西歐的 意識으로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西歐에서의 특정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natio는 프랑스大革命을 계기로 “言語와 血緣的 共通性, 그리고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民族的 속성등이 민족적 概念속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社會的 계급간의

적대감 또한 중시되었다.”²⁰⁾ 그 결과 영토, 경제적 결속, 민족체, 언어, 文化的 側面이 포함되게 되었고, 따라서 民族의 概念은 現實化하였다.

民族體와 區分되는 民族인 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서 血緣을 그 共通의 屬性에서 제외하고 있다. 要約하면 ① 部族들과 民族體들(narodnosti)은 민족으로 굳혀질 수 있다. 그러나 ② 이 과정에서 部族·民族體·民族의 人種的 屬性을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유전적 계통은 필수적 조건이 아니다. ③ 그리고 모든 民族은 서로 상이한 나뉘어진 部族들에서 성장해 나왔다. 많은 民族들은 상이한 人種集團 뿐만 아니라 상이한 종족으로 형성되었다. ④ 따라서 同質的 民族이란 없다. ⑤ 결국, 人種的 同質性은 民族概念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²¹⁾

그러나 民族의 概念이 歷史·社會的 범주로서 自然的 性格보다 社會經濟的 性格을 중요시하는데 비하여 民族體는 오히려 反對의 性格을 강조하는 데로 쓰이고 있음은 이에 지적했다. 또한 原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言語, 핏줄, 文化, 습관이 모두 生物學的인 遺傳的 所與態가 아니라 일정한 정도로 社會發展의 산물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民族은 그 內部에 다양한 種族들이 混合된 핏줄이 오랜 時間에 걸쳐 하나의 屬性을 얻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보다 영속적인, 그러나 결코 不變의 것이 아닌, 屬性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民族形成의 歷史的 段階는 資本制이다. 곧 중세말에서 현대의 시작에 이르는 시기에 民族의 經濟的 基礎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註 21) “nation,” in the Great Soviet Encyclopedia, in 31 vols.(Macmillan, 1983), vol.17, 355 ff.

적으로 봉건제에 대한 資本制의 최후의 승리가 있게 된 시기는 民族運動들과 연결되어 있다.²²⁾ 곧 資本制의 成立期에 內國市場의 統合의 要求는 言語와 血緣의 커다란 도움을 받으면서 신속히 民族國家으로 굳혀지는 것이다. 여기서 부르조아지의 성장과 국내적 단일시장의 존재는 民族의 현대적 特徵을 가져오는 客觀的 基礎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공동의 영토, 문자, 문화생활에 덧붙여 단일한 경제를 설정함으로써 마침내 하나의 완전히 발전된 民族이 되었다. 民族의 經濟的 性格은 바로 “民族이란 社會發展의 부르조아적 단계에서 필연적인 결과물, 불가피한 형태인 것”²³⁾을 가리켜 준다. 그리고 “民族國家는 資本制時期에 전형이며 규범형태이다.”²⁴⁾

社會的 삶의 統合過程은 동시에 民族意識을 야기시킨다. 일단 民族意識이 일어나면 그것은 民族의 存在 및 發展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 전체 사람들간의 客觀的 결연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통의 종족적 배경, 민족어, 조국, 문화, 다른 나라와의 特徵의 關係, 민족적 긍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意識에 기초한 결연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民族意識이 再生産되는데는 民族의 活動과 力動性에 의해 크게 규정된다. 레닌은 “封建制로 부터 資本制로의 이행은 民族意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²⁵⁾

註 22) Lenin,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in CW, 20, p. 396.

23) 여기서 레닌은 부르조아社會의 성립과 함께 民族國家의 성립이 있었음을 의식하고 있다.

24) 러시아백과사전에서 재인용(로어판 레닌전집, 25권, 259면)

25) 러시아백과사전에서 재인용(로어판 레닌전집, 26권, 35면)

현대적 의미의 民族의 등장은 資本制와 함께 시작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民族은 부르조아民族으로 그 種의 모습을 歷史에 보인 셈이다. 勞動者, 農民, 기타 非부르조아대중은 부르조아民族에 統合되고 그 一部分이 된다. 레닌이 지적했던 바, “民族的 유대의 형성은 다름아닌 부르조아 유대의 형성이었다.”²⁶⁾

여기서는 부르조아계급과 여타계급의 分化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民族은 여전히 反封建的 鬪爭 속에서 民族的 階級利害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레닌의 소위 ‘全民族的 革命’ (gesamtnationale Revolution)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文化와 民族心理가 一般性的 기속력을 잃고 敵對階級들간의 모노적 성격으로 뒤떨일 때 거기에는 두개의 民族 - 經濟·歷史的 - 이 출현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도 “한 민족 내부에 두개의 상이한 민족”이 들어앉아 있는 것과도 같다. 사실, 潛在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民族文化에는 두개의 民族文化가 存在한다.” 왜냐하면 national'nost가 전체적으로 승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帝國主義時代에 보편화 한다.

마지막으로 民族은 다시금 부르조아民族과 社會主義民族으로 나뉜다. 그것은 동일한 民族體에 속하면서도 상이한 내용과 性向을 배경으로 구분된다. 社會主義民族은 순수한 共同的 經濟生活, 공동의 영토, 民族的 形式과

註 26) Lenin, “Critical Remarks on the National Question,” in CW, 20, p.32.

社會主義의 內容을 가진 民族言語, 새로운 文化的 價値를 통해 社會主義民族意識을 부여 받는다. 그들은 국제적 연대로 나아가며 共產主義의 段階에서 民族의 融和・融合을 통해 民族的 差異를 해소시킨다. 社會主義民族은 共產主義民族의 萌芽이다.

Ⅲ. 保革의 갈림길에 선 民族運動

마르크스·레닌주의는 民族解放運動의 출현이 歷史的으로 일정시기에 可能한 經濟的 基礎를 자본제 형성과의 關係下에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民族運動은 그러한 선에서 두개의 경향을 가진다.

展開해가는 자본제는 민족문제에 관한 두개의 역사적 傾向을 지닌다.

첫째는, 民族的 삶의 자각과 民族運動, 모든 민족적 抑壓에 대한 鬪爭 그리고 民族國家의 成立이다. 두번째의 傾向은 각종 형태로 그 頻度數를 늘어가는 國際的인 交流, 민족적 境界의 崩壞, 자본의 즉 經濟的 삶 일반의 그리고 政治, 科學등의 國際的 單一化的 형성이다.²⁷⁾

첫번째의 경향은 모든 民族이 각자의 國家를 가지기 위한 鬪爭이라고 할 수 있으며 民族個體化的 過程이다. 그것은 자본제의 初期에 일어난 현상이다. 레닌에 의하면, “西部 및 中部유럽에서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時期는 一定時期 즉 대체로 1789에서 1871동안을 포괄한다. 民族運動의 時期와 民族國家의 成立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²⁸⁾

부르조아民主革命으로서 民族運動은 封建制的 要素들에 鬪爭하고 民族的 抑壓을 抵抗하며, 獨立的인 民族國家를 형성함으로써 完成된다. 이 기간동안 民族運動은 진보적 성격을 띄며, 운동이 “消極的”인 목표 — 民族的 抑壓을 벗어나려는 — 를 지탱하려는 범위내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支持를 獲得할 수 있다. 民族의 一般利益의 보호가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利益을

註 27) Lenin, “Critical Remarks on the National Question,” in CW, 20, p.32

28) Lenin,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in CW, 20, pp.405-406.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부르조아지의 주도하에 進行되는 이 時期의 民族運動에 프롤레타리아트는 支援을 아끼지 않는다.²⁹⁾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제아무리 그 勢力이 미미하고 不在한다고 할지라도, 부르조아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組織과 綱令을 가지고 — 맹아적인 形態에서라도 — 이 鬪爭에 나서야 한다. 民族運動은 當面課題에 대한 合意에 기초한 多階級의 운동이지만, 그것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階級들간의 새로운 對立에로 履行해가기 때문이다. 民族運動의 初段階가 어느 정도 達成되는 시점에서 民族運動은 그 自體를 絶대시하고 保護하려는, “民族主義”으로 넘어간다. 民族運動은 이제 “積極的”인 目標을 스스로 설정한다. 보다 鞏固化된 國家權力의 기반 위에서 부르조아階級은 부르조아文化를 民族運動의 中心으로 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과 國際主義를 武力化시키는 것이다. 이 段階에서 “마르크스주의는 民族主義와 화해할 수 없다.”³⁰⁾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階級을 民族보다 第1次的인 社會經濟的 要素로 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民族이 아니라 階級이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가 階級을 民族에 앞세운 데에는 몇가지 전제가 예정되어 있다. 民族의 강조가 계급의식을 惡化시킬 수 있는 環境下에서 계급으로 귀착되지 않고 그 길을 차단시키는 方便으로 동원되는 ‘부르조아民族’ — 이것은 資本制社會에서 社會主義民族의 이야기가 아니다. — 의 구호가 되고 있을 때,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언제나 民族에 앞서 階級을

註 29) Lenin,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in CW, 20, p.412

30) Lenin, “Critical Remarks,” in CW, 20, p.34

選擇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번째의 움직임 — 民族主義를 내세운 — 은 歷史上 民族 國際化의 傾向과 대체로 겹치고 있다. 民族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資本의 世界的 運動이 진행되는 時代에 民族主義의 틀 안으로 民族을 좁혀넣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보다 큰 生産力의 活動空間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社會의 資本 運動은 그 축적의 규모에 따라 필연코 國家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社會主義에서 길은 이 커다란 中央化된 國家³¹⁾이기 때문에 民族國家의 형식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世界的 규모의 社會單位를 나아가게 될 物質的 基礎의 경향을 레닌은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³²⁾

모든 民族의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有機的 全體로서 共通의 計劃에 따라 규제되는 단일의 세계경제의 成立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資本制 아래서 이미 매우 明白하게 들어나고 있으며 社會主義下에서야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資本國際化에 따른 傾向은 낡은 國家의 경제를 지양하고 기존의 경제운동에 맞는 形式을 要求한다. 그러나 國內의 統合은 강요나 병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要求와 合意에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民族은 먼저 分離·獨立의 自由·權利를 충분히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³³⁾ 分離와 離脫의 自由가 있고서야 다시 하나가 될 意思도 있을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黨의 임무는

註 31) Lenin, "Critical Remarks," in CW, 20, p.34

32) Lenin, "Draft Theses on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 in CW, 31, p.147

33) Lenin, "Tasks of the Proletariat in our Revolution," in CW, 24, p.73

가능한 한 큰 國家의 형성을 위해 努力하는 것이다.

國家統合의 최종목표는 世界國家이다. 單一的인 完全한 共同體 — 共產主義의 마지막 局面 — 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나 “過渡的 形態”로서 ‘聯合’이 있어야 한다.³⁴⁾ 여기서 民族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國際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로 발전하는 것이다.³⁵⁾

세번제의 關聯部分은 帝國主義時代에서 民族運動의 性格이다. 그것은 資本制의 初期나 成熟期의 民族運動과 상이하게 國際화된 資本支配의 時代에 民族的 抑壓을 벗어나려는 경우이다. 帝國主義時代의 民族解放運動은 자연스런 鬪爭이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담보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抵抗이었다. 왜냐하면 世界는 帝國主義의 다음 段階를 연결시키지 않는 뒤따라나오는 부르조아·民主革命의 진도에 그렇게 밝은 未來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月大革命의 勝利는 世界資本制의 취약고리를 부수고 나온 최초의 革命의 一環임을 보여주었다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본다. 따라서 승리한 蘇聯 社會主義는 先發資本制의 프롤레타리아트 勞動運動 및 第3世界의 民族解放運動과 함께 世界革命의 3개의 中心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關聯되면서 世界革命을 발전시킨다. 이제 民族解放運動은 革命의 ‘豫備軍’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戰線을 형성한다.

帝國主義下의 民族解放運動은 과거의 民族解放運動이 ‘革命的·民族的’ 혹은 보다 정확히는 부르조아·民主的인 性格을 지녔던 데 비하여 일면 그러한 性格을 지니면서도 반면 反帝國主義的·社會主義的 性格을 지니는 二重성이

註 34) Lenin, “Draft Theses,” in CW, 31, p. 146

35) “ ”, p. 148

있다. 後進社會의 民族解放의 運動은 反封建的인 鬪爭의 性格을 지닌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³⁶⁾

당신들은 반드시 共產主義의 一般的 理論과 經驗에 의거하고 유럽 나라들에는 없는 그러한 특수한 環境을 참작하면서 그 理論과 經驗을, 主된 民衆이 農民이고, 資本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中世紀의 잔재를 반대하는 鬪爭의 任務를 遂行하여야 할 그러한 環境에 適用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확실히 그러한 류의 任務를 歷史上 브르조아계급은 有效하고 기민하게 遂行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共產主義者에게는 유례없는 性質의 任務였다.

그러나 全體로서의 世界資本主義가 있게 된 現代에서 植民地와 帝國主義는 有機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帝國主義의 存續이 植民地의 확보에 달렸다면, 植民地에서 民族解放運動은 帝國主義로부터 離脫・解放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民族問題가 일반적인 植民地問題로 발전해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民族問題란 植民地에서 나타나는 民族矛盾이 되기 때문이다.

民族解放運動의 主된 力量은 1)브르조아지 2)농민이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프롤레타아트와 농민의 독재에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관계도 보다 복잡한 狀況을 예정하면서 具體化한다. 곧 帝國主義의 侵奪이 현저한 곳에서는 극소수의 大브르조아지 - 外國資本의 매판적인 現地代理人-를 除外한 中・小브르조아지는 革命的・民族的 勢力에 合流한다. 그러나 農民의 土地問題가 政策의 현실로 강요해오는 狀況下에서 이들은 反動化의 경향을 띠고 그 主力이 離脫할 수도 있다. 프롤레

註 36) 「마르크시즘과 民族解放運動(학민사, 1988), 54면

타리아트는 革命의 초기에 소수의 매관자본가를 除外한 全民族的 聯合을 추진하여야 하며, 農民의 의식이 고양되어 革命的 潛在力이 組織될 수 있도록 土地問題를 최단시기에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同盟의 기초 위에서 反封建的·反帝的 鬭爭을 전개하게 된다. 民族運動에 대한 레닌주의의 觀點을 古典的인 마르크스·엔겔스의 理論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무엇때문일까?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個別國家들의 支配와 從屬으로 연결된 古典資本制의 延長에 놓인 現實에서 植民地問題를 보지않을 수 없었던 데 비하여 레닌의 時代에는 個別國家들이 아닌 世界資本制의 構造속에서 植民地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다는 점의 차이로서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어떻게 民族問題를 보았는가? 그들은 植民地의 解放鬭爭이 종주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英國과 아일랜드植民地, 러시아와 폴란드에 관해서 쓴 글과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論理가 들어 있다. 즉 英國과 러시아의 支配階級은 社會내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條件을 바로 그들의 植民地支配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만약 이들 프롤레타리아트가 植民地解放鬭爭을 支援하고 이들이 獨立하게 된다면 支配階級의 위치는 현격히 상실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英國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일랜드의 勞動者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서 植民地解放을 도울 수 밖에 없다. 37)

註 37) 關聯되는 몇개의 인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英國勞動階級이 아일랜드 問題에서 支配階級의 政策과 최종적으로 對立하지 않는한, …英國내에서 결정적인 前進이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英國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러한 政策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理由는 아일랜드인에 대한 동정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政策이 英國勞動階級自體에 대한

둘째, 증주국의 植民地착취는 人道的 觀點에서가 아니라³⁸⁾ 가장 비열한 동기와 참혹한 手段이 動員된 철저히 惡魔的 觀點에서 이루어진다. 소위 ‘自由貿易’은 ‘完全한 고립’속에서 아시아적 경제를 거둬하는 인도와 中國에서 그들의 취약하고 落後한 經濟基礎를 무너뜨리고 그에 대신하여 “아시아에 西歐社會의 物質的 基礎를 놓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英國의 부르조아지는 生産力의 발전 뿐만 아니라 人民에 의한 전유의 發展에 의존하고 있는 人民大衆을 해방하거나 社會的 條件을 물질적으로 改善하도록 결코 강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遂行하게 될 것은 解放과 改善을 위한 물질적 전제를 만들어 놓는 일이다.”³⁹⁾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民族問題를 世界的 차원이 아닌, — 그러나 세계적인 影響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 관계에서 論議한다. 그리고 植民地에서의 解放鬪爭이 지니는 의의를 本國의 관계에서 보고 있을뿐 植民地 自體內 鬪爭의 主力과 예비력, 同盟과 주타격의 方向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 鬪爭의 전도마저도 그려져 있지 않다.

→ 이해의 觀點에서 필요불가결하다...” “Marx to Kugelmann (Nov. 29, 1869): “英國의 支配階級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英國에서가 아니라 오직 아일랜드에서만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民族的 解放은 英國勞動階級에 있어 추상적인 정의나 박애의 問題가 아니라 그 자신의 社會的 解放의 첫째 條件이라는...” Marx to Mayer and Vogt (Apr. 9, 1870).

註 38) 식민지착취가 선한 동기 혹은 선한 일이라고 강변하였던 Van Kol의 論法 혹은 現代의 Bill Warren, Imperialism Pioneer of Capitalism (NLB, 1980)을 想到하다.

39) “The Futurr Results of the British Rule in India,” New York Daily Tribune (Aug. 8, 1853). “The British Rule in India” NYDT (June 25, 1853) 참조

이것은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現實로서 아직껏 實現되지 못했던 社會主義革命을 열망했던 그들로서는 植民地에서의 解放鬪爭이 크게 고무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이 살았던 시기를 들어서면서 狀況은 急變해 갔다. 資本主義는 帝國主義에로 發展했고, 全世界는 열강들의 植民地로 分割되고 말았다. 10월大革命의 勝利와 함께 世界革命의 問題가 전면으로 등장하고, 민족문제는 그 중요한 위치에도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民族問題는 植民地問題 보다 정확히는 世界資本制의 生産過程에 편입된 植民地域의 문제로 質的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植民地の 解放은 단순히 帝國主義와의 斷切이 아니라 그 자신의 自立的 經濟基礎 없이는 불가능한 까닭에 내용상의 獨立이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오늘날 특히 第2次世界大戰을 계기로 植民體制는 全世界的으로 崩壞過程에 들어섰으며, 금세기의 마지막에는 이 과정이 完了된 것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問題는 이제 더 이상 政治的 獨立의 문제가 아니라 經濟的 自立的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現代에는 新植民主義의 문제에도 民族問題가 合流하고 있다. 그렇다고 民族問題가 단일한 것은 아니다. 經濟的 自立的 可能性을 한 나라의 經濟成長의 水準에 관련시켜 볼 때, 4 - 5개의 集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뒤늦게 시작했으나 급속히 發展速度를 높이고 있는 나라들, 발전속도는 미미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들, 成長의 부침을 거듭하는 나라들, 정체적인 아니면 아직 發展을 始作하지 않은 나라들 등이다. 첫번째를 除外한 나라들에서 民族問題는 그 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賦存資源의 質과 規模에 따라 보다 심각한 종속의 形態가 강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IV. 世界革命에서 民族問題의 位置

帝國主義時代의 民族問題는 더이상 한나라의 獨立된 問題가 아니며 그 해결도 또한 一國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資本制社會에 서와는 달리, 帝國主義下에서는 民族問題는 全世界的 現象으로 있게 되기 때문이다. 레닌마저도 過去처럼 한 社會의 經濟的 관계에 따른 社會主義에 로의 이행이 있게되는 것이 아니라 革命의 辨證法은 世界資本主義의 成立에 의해 그리고 그 내부의 不均等 發展 때문에 오히려 東方에서 世界革命의 全面化가 일어날 것을 예고했다.⁴⁰⁾ 여기서는 東方의 革命이 지니는 世界史的 性格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전체로서 世界資本主義의 전제없이 世界革命의 概念은 理論化될 수 있다. 그렇다면 世界資本制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마르크스와 Engels에 있어 資本制는 단지 一國的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채 商品의 輸出等を 통해 植民地의 착취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말 資本主義는 帝國主義에로 發展했으며, 商品과 함께 資本輸出을 하게 된다. 그 결과 後進地域은 先發資本制의 生産過程에로 점차 編入되고 마침내는 그 下位的 一部 - 原資材 및 勞動의 供給 및 商品需要 - 로 轉換되었다.

이러한 結果는 全體로서 世界資本制⁴¹⁾이다. 그것은 資本蓄積과 집중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現象이다. 資本制는 이제 그 潛在力을 實現하였다.

註 40) “지금까지는 그들〔社會民主主義의 者들〕은 西歐의 資本制와 부르조아 民主主義가 發展모델의 일정한 길을, 必要的 變更을 가하여,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Lenin, “Our Revolution”, in CW, 33, p.477.

41) 「마르크시즘과 民族解放運動」, 171 面

그러나 世界資本制는 內部에 矛盾과 갈등을 重複하여 再生産하면서 持續된다. 資本과 勞動의 基本對立은 여전히 解消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는다. 선발자본제들 사이의 競爭과 對立은 각각 蓄積의 規模와 속도가 相異한 段階에 相互間의 牽制와 反발의 양상을 대면서, 더욱 尖銳化한다. 특히 帝國主義國家와 植民地 사이의 對立은 가장 치열한 것이 된다. 그러나 帝國主義와 植民地는 “有機的으로 聯關되어 있다.”⁴²⁾

그것은 단순히 帝國主義가 植民地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⁴³⁾는 데서도 드러난다. 곧 帝國主義 經濟의 再生産 - 그리고 그 위에 기생하는 上部構造 - 이 植民地를 包含하는 일체의 物的·關係的 再生産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이 問題의 가장 本質的 側面은 東方人民의 帝國主義에 대한 態度이다.”⁴⁴⁾

東方民族의 革命的 추동력은 帝國主義의 世界的 構造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에 대한 戰術的 考慮에서 요구되는 體制가 아니다. 폴란드의 體制에는 “社會民主黨은 유럽帝國主義를 反對하는, 誘致段階의 植民地 부르조아지의 鬪爭을 유럽에서의 革命的 위기를 尖銳化시키기 위하여 利用할” 것을 要求한다. 그러나 레닌은 묻는다. 오히려 “유럽에서의 被壓迫民族의 鬪爭 - 이것은 먼 植民地의 훨씬 더 發展한 暴動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심하게 유럽에서의 革命的 危機를 尖銳할 것이다”⁴⁵⁾ 라고 곧 團結의 必要性은 단순히 전술상의 必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資本制의 世界的 性格,

註 42) 윗 책, 94 面

43) 윗 책, 97 面

44) Lenin, “Address to the Second All-Russia Congress of Communist Organizations of the Peoples of the East,” in CW 30, p.151.

45) 「마르크시즘과 民族解放運動」, 48 面.

世界資本制의 존재 그 自體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帝國主義의 特徵적인 모습은 수많은 被抑壓民族과 엄청난 富 및 強力한 軍事力을 가진 지극히 소수의 抑壓民族에로 全世界가 갈라져 있다는 데 있다.”⁴⁶⁾

10月大革命은 이와같은 世界資本制의 體系로부터 러시아의 이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世界革命의 시발점을 이룬다. 따라서 世界부르조아지는 소비에트 國家權力에 대한 封鎖·교살의 鬪爭을 조건없이 展開하게 된다.

그에 對抗하여, 소비에트 權力과 모든 民族·植民地解放運動은 同盟을 結成下에 世界프롤레타리아트의 勝利를 確保할 때까지 鬪爭하여야 한다. 이 同盟의 形態는 各國 프롤레타리아트의 共產主義運動 發展段階 혹은 後進國家 혹은 後進民族體의 勞動者·農民의 부르조아·民主解放運動 發展段階에 의해 決定된다.⁴⁷⁾

이 同盟은 世界革命의 주력을 이룬다. 유럽과 아메리카를 社會主義와 帝國主義間的 基本的인 鬪爭의 戰線이며 舞臺라고 할 수 있다면, 原料, 燃料, 食糧 및 막대한 人的資源이 있는, 완전한 權利를 가지지 못한 民族과 植民地들은 帝國主義의 後方이며 豫備軍이라고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戰爭에서 勝利하자면 다만 戰線에서 勝利할 뿐만 아니라 敵의 後方, 그의 豫備軍을 革命化 하여야 한다.⁴⁸⁾

全世界的인 規模의 資本制, 그에 對抗하여 일어나는 世界革命을 세계적 모순의 일환으로 把握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民族問題는 확대되어 결국에는

註 46) Lenin, “Report of the Commission of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 Questions July 26,” in CW 31, p.240.

47) Lenin, “Draft Theses on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 Questions,” in CW 31, p.146.

48) 「마르크시즘과 民族解放運動」, 97面.

事物의 進行自體에 의하여 植民地에 관한 一般的 問題와 合流되었고, 民族的 壓迫은 國內問題로부터 國際問題로 變하였으며, 完全한 權利를 가지지 못한 弱小民族들을 壓迫시키기 위한 帝國主義國家들에 對항하는 鬭爭에 관한 問題로 變하였다. 49)

帝國主義에 對항하는 世界革命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 戰線으로 擴大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훨씬 複雜한 과정과 多樣한 階級構成, 그리고 장기 間에 걸치는 것이다. 여지껏 社會主義 革命의 中心으로 생각되어온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革命的 力量을 帝國主義의 초과이익의 침윤에 의해 漸進적으로 喪失하면서, 체제내적인 勞動運動·反核運動·反公害運動·平和運動·人權運動에서 커다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에 比하여 世界の 社會主義 運動 - 世界革命은 蘇聯과 第3世界의 民族解放鬭爭이 同盟하는 영역에서 보다 可視적인 성과를 보였음은 事實이다.

民族부르조아지는 民族·植民地問題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는가? 레닌시대의 植民地들이 대부분 중세적인 支配양식에 머물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民族問題는 基本的으로 부르조아·民主革命의 問題이었으며, 民族부르조아지는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歷史的 現實성과 관련하여 Chicherin은 勞動者와 農民이 同盟하여 부르조아지에 반대하면서 나아가 갈 것을 Preobrazhenski는 부르조아지를 彈壓할 것을 主張했다. 50)

Serrati - 당시 이탈리아 共産黨 代表나 M.N·Roy - 印度人으로서 당시 墨西哥 共産黨 一圓 - 모두가 民族解放鬭爭에서 부르조아지의 革命的

註49) 壼 책, 101 面

50) B.G.Gafurov, et al., Lenin and National Liberation in the East
(Moscow: Progress Publisher, 1978), p.66.

력량을 承認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레닌은 단순히 어떤 나라의 特殊性이 아니라 世界革命의 一般條件의 原則위에서 이 문제를 보았던 것이다.⁵¹⁾

社會主義革命은 단지 개개 국가에 있어서의 자국부르조아지를 反對하는 革命的 프롤레타리아의 鬪爭으로만 될 수는 없으며, 또 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다. 社會主義革命은 帝國主義의 壓迫을 받고 있는 모든 植民地와 모든 국가의 鬪爭으로 될 것이며, 國際 帝國主義를 반대하는 모든 被壓迫국가들의 鬪爭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鬪爭의 결과 승리한 개개의 植民地에는 특이한 狀況이 일어나게 된다. 곧 資本制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生産力에 근거하여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일이다. 여기서 레닌은 非資本制的 길이 全世界的 問題임을 간파하고 상이하고 특수한 履行段階, 形態, 方法의 總體를 지칭하는 과도기적 이행형태의 重要性에 관심을 환기시켰다.⁵²⁾ 곧 그는 이와 關聯下에 “프롤레타리아트革命에의 이행 혹은 접근의 形態”를 발견해낼 것을 要求한다.

結論적으로 世界革命에서 民族問題는 프롤레타리아트革命의 일반문제의 한 부분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 성격과 課題가 發展段階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民族問題를 階級問題에 증속시켜 보아야 하며, 그런 까닭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階級鬪爭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革命의 課題의 관련밖에서 民族問題를 보아서 안된다고 레닌主義는 주장한다. 問題는 民族問題가 階級問題의 희석화가 아니라 階級問題와 重疊적으로 있게 될

註 51) 「 마르크시즘과 民族解放運動 」, 52 面.

民族부르조아지가 革命의 일정시기동안 대체로 反帝運動의 傾向성을 가진다는 레닌의 진단은 옳은 것이었다.

52) 「 Lenin and the National Liberation 」, p.112.

때, 그러한 對立的 認識이 줄 수 있는 答辯의 한계이다. 맑스 레닌主義가 일개의 教條가 아닌 社會의 自己革新을 위한 끝없는 革命的 輸血인 한에서, 帝國主義時代의 프롤레타리아트의 問題의 한 부분으로서 民族問題의 본질은 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맑스·레닌主義의 민족문제에 관한 方法論, 民族體와 民族의 實體구명, 民族運動의 兩面性—진보적인 운동과 보수적인 主義, 그리고 民族問題의 世界史的 性格을 중심으로 帝國主義時代의 民族問題를 概略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간단한 논의는 그동안의 수많은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고 그에 적합한 관심을 줄 수 있는 규모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관해서 필자는 계속해서 “民族問題와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씬으로써 이를 補充하려고 한다.

여기서의 논의는 고전이론—마르크스·엔겔스·레닌·스탈린—의 觀點을 보다 충실하게 살펴 보려는 點에서 그에 文獻적으로 집중하는 方法을 사용했다. 그들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마르크스·레닌주의 民族理論임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蘇聯의 民族政策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變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레닌主義의 民族理論이 과연 현대의 民族과 民族問題에 대한 適實性 있는 性格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異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입장을 달리하는 이데올로그의 경우 그러하다. 필자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의의 論理的 結論을 따라 再整理하려고 하는 한편, 상대적인 가치의 평가를 생략의 方法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 글이 무비판적인 서술로 읽어지지 않길 바란다. 그것은 비관정신을 가지면서도 이해에 앞선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류의 글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서 스탈린에 이르는 고전적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民族問題

를 바라보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붙들었던 思想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革命的 人間愛이었다. 한 나라안에서 資本의 멍에에 시달리는 勞動者의 처지는 이제 全世界的인 근로대중의 신음소리에 비하면 작은 에피소드가 되었다. 아니, 선발자본제의 노동계급은 식민지의 초과 利潤을 함께 균점함으로써 안정한 정도로 안락한 삶을 보장받으면서 歷史의 活火山이기를 그쳤다.

그에 비하여 가중되어가는 고통의 와중에 선 第3世界의 근로대중은 오늘날 그 어느 때 보다도 자본의 향락과 착취에 분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의 問題는 더욱 더 全世界的 水準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가능한 최대의 민족적 犧牲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러해야 한다고 외쳤던 레닌의 '레닌主義'는 때로는 革命의 수출로 선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의 融合에 대한 뜨거운 정열과 發展에도 불구하고, 世界는 지금 그 반대의 경향 즉 자기를 돌보는 데로 집중하는 인상이다. 프롤레타리아트 國際主義의 희석화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강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한다. 民族問題도 그 국제적 성격을 잃어간다. 이것은 資本制의 民族化傾向에 기인한 것인가? 世界資本制가 보다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退潮의 의미는 새로운 理論的 難點을 빚고 있다고 하겠다.

서기 1989 년 12월 28일 발행 100부 발간	
발간업체명	휘문인쇄주식회사 ☎ 734-2523-4 735-2523-4
대표자	구 자 만
인가근거	내자 2066 - 8759 (68.6.12)
입회자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5 급 사 순 문

社會主義下의 民族理論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 1 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번지

정부종합청사 405 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휘 문 인쇄 (주)

< 非賣品 >

